

韓國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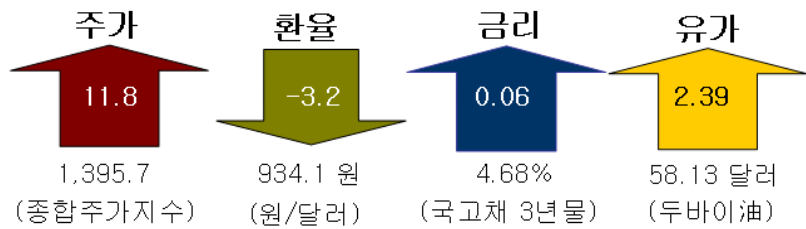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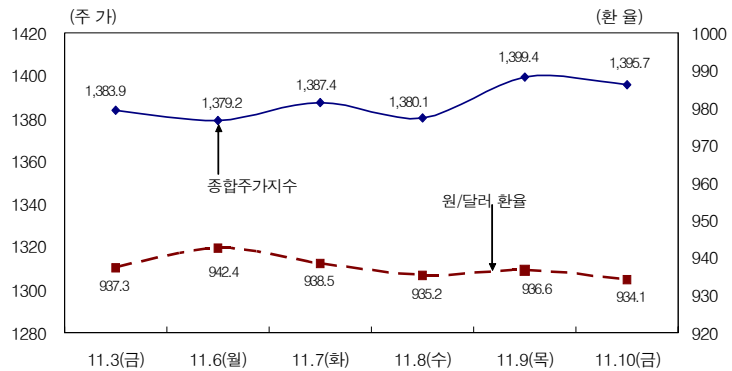


■ 원/엔 환율의 향방

- 원/엔 환율 하락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3~11.10)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1
 - 원/엔 환율의 향방
 - 원/엔 환율 하락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1
- 주간 경제 동향 10
 - 실물 부문 : 구매력 금감으로 소비 침체 본격화 10
 - 금융 부문 : 금통위 콜금리 동결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지식 산업팀 : 이 원 형 연구위원 (3669-4031, lwh@hri.co.kr)

Executive Summary

□ 원/엔 환율의 향방 - 원 엔 환율 하락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최근에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100엔당 원화 환율은 11월 10일 현재 795.13원으로 1997년 11월 1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원/엔 환율의 급락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상승률이 엔화가치의 상승률보다 큰데 있다. 이의 첫 번째 요인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달러 수급구조가 다른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해외자본의 유입이 증가하고 일본은 자본유출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유입 증가는 은행과 기업들의 해외차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은행의 해외차입은 은행과 수출기업간의 선물환 매매가 증가하여 늘어나고 있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선물환의 위험 헤지를 위해 달러를 차입하여 환전) 그리고 기업은 해외자본의 낮은 이자율에 의하여 외화대출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저금리정책에 의한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자본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일본의 싼 자금을 빌려 외국에 투자하는 엔캐리 자금이 증가하면서 자본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아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저금리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의도를 보이면서 엔화가치가 더욱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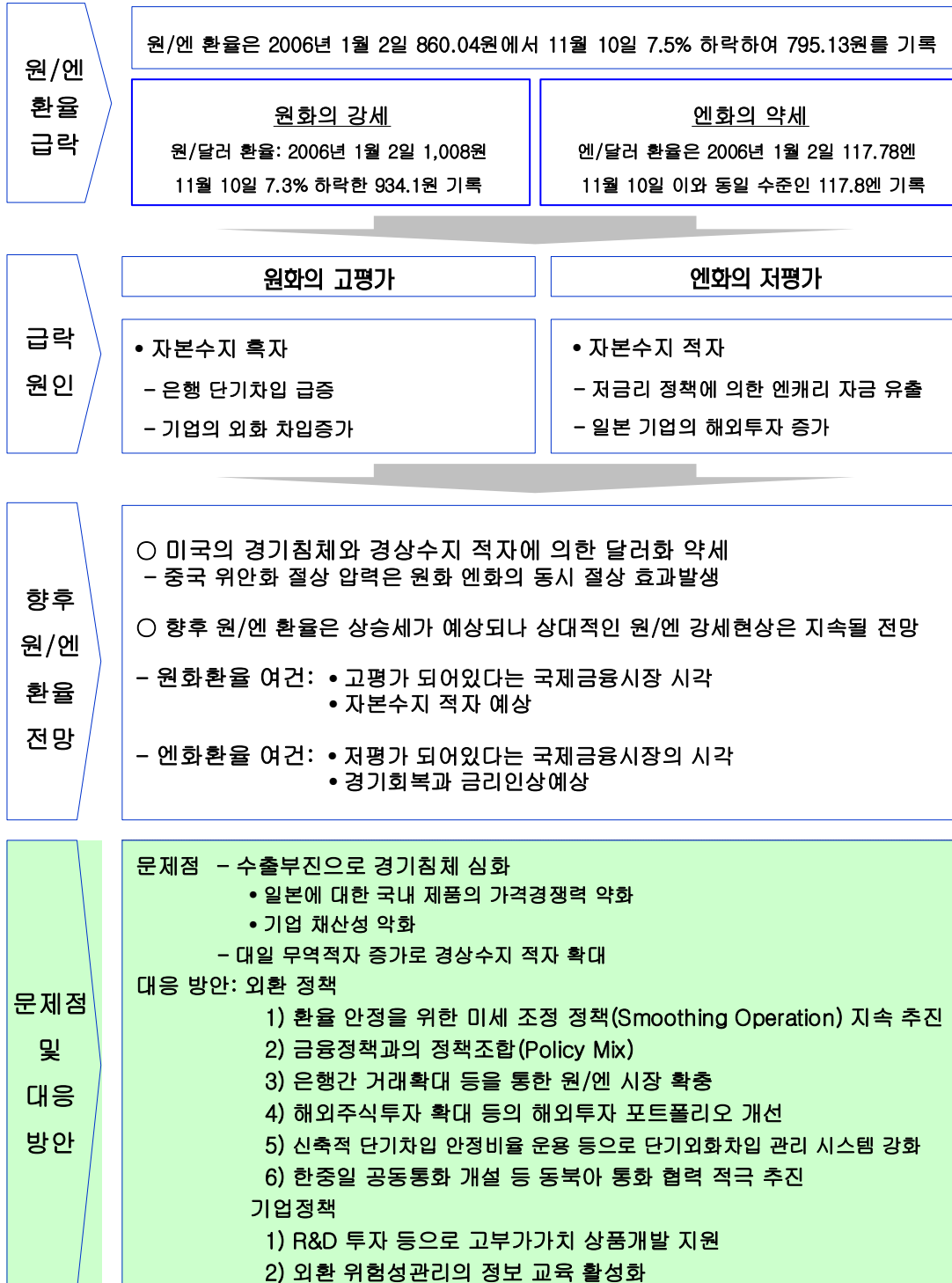
향후 원/엔 환율 하락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원화 강제 현상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일단 글로벌 달러약세 현상이 지속되어 원화와 엔화의 달러화에 대한 강제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쌍둥이 적자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게 위안화의 절상 압력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화와 엔화 역시 달러에 대하여 절상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제기초여건이 서로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원화 절상률이 일본 엔화의 절상률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경기침체와 자본수지 적자에 의한 평가절하 요인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 지속과 경기회복에 의한 이자율 인상으로 자본유출이 감소하는 절상요인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2007년 원/엔 환율은 2005년의 평균 환율 930원보다 낮고 2006년 평균 환율 830원이나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원/엔 환율의 하락은 국내 수출 여건을 악화시켜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시장에서 한·일간 경합 상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화의 엔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상승은 일본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게 된다. 또한 일본 엔화가치에 의한 일본 기계 부품의 수입 증가는 국내 부품제조업체들의 경기를 더욱 둔화시키고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엔 환율 가치의 상승에 의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환정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원/엔 환율이 적정수준에서 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경제기초여건 이상 절상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미세 조정 정책(Smoothing Operation)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자율 등 국내 금융 정책과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국내 정책금리 결정시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원/엔 환율이 적정수준을 유지되도록 은행간 원·엔 거래의 확대 등을 통해 원/엔 시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해외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의 해외주식투자를 확대하여 자본수지 관리를 통해 환율가치의 급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기차입의 안정비율을 유동적으로 관리하여 단기채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달러화 중심의 결제통화를 다변화하기 위한 한중일의 공동 통화 도입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기업정책 측면**에서는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으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외환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업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외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원/엔 환율의 향방

- 원/엔 환율 하락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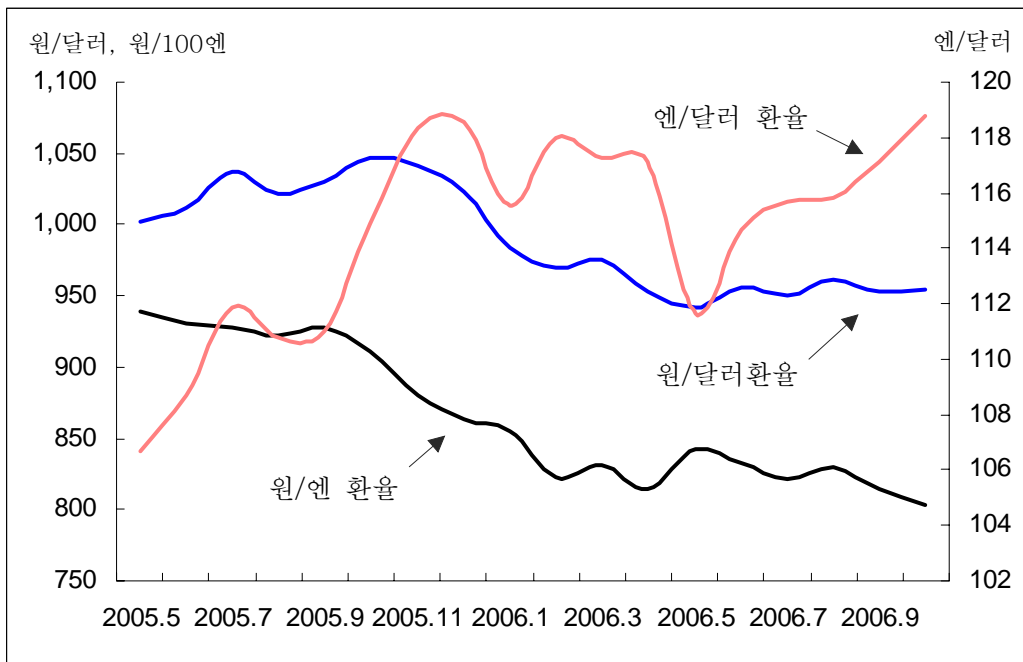


□ 원/엔 환율의 향방 - 원/엔 환율 하락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1. 원/엔 환율 강세 지속

- (원/엔 환율의 하락) 달러화에 대하여 엔화는 약세인 반면 원화는 강세를 보여, 원/100엔 환율은 2006년 1월 2일 860.04원에서 7.5% 하락하여 11월 10일 현재 795.13원을 기록함
- 엔화의 약세: 2006년 엔/달러 환율은 117.78엔에서(1월 2일) 109.59로(5월 15일) 하락하였으나, 이후 차츰 상승세를 보여 11월 10일에는 117.8엔을 기록하며 달러에 대하여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원화의 강세: 2006년 1월 2일 1,008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7.3% 하락하여 11월 10일 현재 934.1원으로 달러에 대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원 / 엔 / 달러 환율 >



2. 원/엔 환율의 하락 원인

- (원/엔 환율의 하락 원인) 2006년 원/엔 환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한국의 자본유입과 일본의 자본유출, 일본의 저금리정책 지속 등에 있음
 - 일본의 자본수지 적자: 일본은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를 초과하는 기타투자수지 적자(자본 유출)로 인해 엔화의 가치가 절하된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1~9월까지 기타투자수지는 13조 2천 954억엔 적자를 기록하여, 동기간 경상수지 흑자 12조 7,850억엔을 초과함
 - 2006년 6월말 외화표시자산은 34조엔 인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의 2.8배 임
 - 특히 일본의 저금리 지속으로 일본에서 자본을 빌려 외국에 투자하는 엔캐리 자금이 늘어난 것도 엔화환율 약세요인으로 작용
 - 외국은행이 5.5조엔의 콜시장 자금조달을 확대하였는데 이 자금의 확대를 일본의 저금리에 의한 엔캐리 거래자금으로 추정함¹⁾
 - 일본의 저금리정책 지속: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2006년 10월 2일 일본 중의원 임시국회에서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을 통한 경제부양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통해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2006년 10월 31일 아베 총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으로 저금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시사
 - 한국의 단기자본유입 증가: 2006년 9월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크게 초과하는 은행의 단기차입 위주의 자본수지 흑자가 발생하여 원화의 가치상승을 가져옴
 - 8천만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자본수지에서는 14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자본유입이 증가함
 - 증권투자수지는 감소하였으나 은행부문의 차입 등에 의한 기타투자수지가 41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²⁾
 - 2006년 2/4분기 대외채무 2,293억 달러 중 41.2%인 단기채무는 946억 달러로 2005년 658억 달러에서 43.7% 증가하였음
 - 국내은행의 단기외채는 2005년 515억 달러에서 2006년 6월말 794억 달러로 54.1% 증가하였음

1) 일본종합연구소, '엔화의 저평가와 유로화의 고평가', *Research Eye*, 2006. 8. 30.

2) 국내 수출기업들이 달러가치 하락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선물환을 은행에게 매도하고 은행은 원화를 기업에게 지불, 선물환을 보유한 은행 또한 환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헤지를 목적으로 외화차입을 늘리게 됨.

3. 원/엔 환율의 전망

○ 향후 한·일경제의 기본여건 변화로 볼 때 엔화의 절상원인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여 원/엔 환율의 하락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임

①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지속) 미국의 경기침체와 경상수지적자에 의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어 주요 통화의 환율은 절상될 것이며, 특히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지속하여 원화와 엔화의 추가 절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달러화 약세 지속: 향후 미국의 경기침체와 쌍둥이 적자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될 전망

- 중국 위안화 절상: 2007년 중국은 미국의 절상압력과 중국의 통화관리를 위한 단계적인 개혁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환율도 절상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통화스왑거래 허용, 해외투자한도 폐지, 일일 변동 폭 범위(달러화 $\pm 0.3\%$, 달러 제외 통화 $\pm 3.0\%$) 조절 등 외환관리 제도개혁으로 점진적인 절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외환보유액 증가뿐만 아니라 통화량(M2)도 2006년 8월 17.9% 9월 16.8% 증가하는 통화관리 문제가 제기되어, 통화정책위원회는 최소 1년에 2% 이상 위안화를 절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원화와 엔화의 공통 절상 요인: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되면 한일 양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여 결국 원화와 엔화 모두 절상 될 것임

② (엔화 환율 여건) 2007년 일본은 경기회복에 의한 단계적인 이자율의 인상과 경상수지 흑자 증가로 엔화의 평가절상이 기대됨

- 경기회복과 경상수지 흑자: 2007년 일본경제의 회복으로 경제성장률 2.0~2.5%, 물가상승률 0.3~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경제여건에 따라 향후 이자율의 인상과 저평가된 엔화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됨
- 금리인상에 의한 자본유출의 감소: 일본의 물가상승 등 경기회복 신호에 따라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자본유출의 규모는 점차 감소할 전망
 - 현재 일본의 금리는 해외금리와 차이가 너무 큰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자본의 유출량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연구기관들은 2007년 엔/달러 환율이 절상되어 최저 103엔에서 최고 117엔을 기록하여 평균 엔/달러 환율은 111.1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주요 연구기관의 일본 경제 전망 >

		2006	2007
일본 종합연구소	실질 GDP	2.3	2.5
	소비자 물가	0.2	0.3
미쯔비시-UFJ	실질 GDP	2.1	2.0
	소비자 물가	0.3	0.8
다이와 종합연구소	실질 GDP	2.5	2.4
	소비자 물가	0.6	0.5
기 관 평 균	실질 GDP	2.3	2.3
	소비자 물가	0.36	0.53

< 일본 연구기관의 2007년 엔/달러 환율 전망 >

	2005	2006	2007
미쯔비시-UFJ	113.3	114.8	117.3
미쯔비시 종합연구소		109.7	103.4
일본 종합연구소		116.6	112.0
다이와 종합연구소		110.1	107.4
일본경제 연구센터		114.4	115.4
기 관 평 균		113.12	111.1

주: 11월 7일 현재

③ (원화 환율 여건): 글로벌 달러화 약세라는 근본적인 원화절상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내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적자 등 원화 가치의 절하요인이 존재

- 글로벌 달러화 약세: 미국 경기침체에 의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어 중국 등과 함께 각 국가의 통화는 절상압력을 받아 원화환율 절상세 유지 전망
- 국제수지 적자: 2007년 원/엔 환율의 하락에 의한 무역적자 증가 등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와 자본수지 적자도 예상
 - 현재 해외투자과 외국인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여서 2006년과 같은 단기차입 급증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본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④ (국제 금융시장의 관점)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원화의 고평가로 투자 가치가 낮다는 견해가 있고, 엔화는 플라자합의 이후 실질실효환율이 최저 수준에 있어, 향후 원화의 평가절하와 엔화의 평가절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

- 엔화의 실질실효환율³⁾은 2006년 3분기 73(2000=100)을 기록⁴⁾
- 반면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06년 3분기 124.5를 기록

○ 이상의 한·일 경제 기초여건 변화와 국제투자기관들의 전망에 기초하면 2007년 원/100엔 환율은 800원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원/100엔 환율 전망 >

	환율 전망 폭
원/달러 전망	800 ~ 1000
엔/달러 전망	103 ~ 117
원/100엔 전망	776.7 ~ 854.7

주: 환율전망 폭은 각 투자은행 등 기관 전망치의 최고와 최저 수준임.

3) 여기에서 실질실효환율이란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비중을 가중평균하고 물가지수의 변동을 감안한 환율이며 이것을 이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평가함

4) OECD, 실질실효환율

5. 원/엔 환율의 문제와 대응 방안

1) 문제점

- (기업 경쟁력의 약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기 때문에 원/엔 환율의 하락(원화 가치상승)은 무역적자 증가와 동시에 기업 수익률이 악화됨
- 한·일간 수출 경합의 심화: 한국 상위 50대 수출품목 중에서 일본과 세계시장에서 경합하는 품목의 수는 24개 품목이며, 이들 경합품목의 수출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등의 주요 수출품목이 일본의 주요수출 품목과 경합되고 있음
 - 수출 상위 품목 중에서 한·일간 경합하는 품목비중은 2000년 28.8%, 2004년 46.1%, 2005년 50.6%로 증가함
- 북미 시장 수출의 부진: 2006년 세계적인 수출단가의 하락과 함께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는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시장과 HDTV시장에서 한국 상품 수출을 감소시킴
 -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는 16,358달러에서 18,300달러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일본 토요타의 캠리는 18,500달러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7.5% 감소하고 일본의 대미수출은 140.1% 증가함⁵⁾

< 2006년 1~3월 주요 수출 품목의 지역별 수출 단가 증감률 >

	세 계	미 국	중 국	EU 25개국	일 본
휴 대 폰	11.2	-10.7	-24.8	-5.5	-45.1
반 도 체	-11.6	-22.6	-23.6	-32.8	-6.1
중형 승용차	0.8	2	-17.5	-6.4	-22

자료: KOTRA 동북아팀, 『환율변동에 따른 한일 수출경쟁력 비교』 기획조사 06-036, KOTRA, 2006. 7. 28.

5) KOTRA 동북아팀, 『환율변동에 따른 한일 수출경쟁력 비교』 기획조사, 06-036, KOTRA, 2006. 7. 28. 여기에서 KOTRA는 2006년 3월 기준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채산성 악화: 한국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과 달러 약세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됨
 - 한국의 수출 품목은 휴대폰, 반도체, 승용차 등 '10대 상품'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수출단가는 일본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이며 세계적인 하락추세를 보임
 - 2006년 2/4분기 수출 채산성과 교역조건은 2004년에 비하여 각각 12%, 15% 감소함

< 교역조건과 수출채산성 지수 >

(단위: 2000=100)

	2004	2005	2006 1/4	2006 2/4
순상품 교역조건	85.3	79.0	75.1	72.4
수출 채산성	86.3	79.6	75.2	75.9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 (對日 무역적자) 경쟁국들의 일본시장 진출과 환율 등의 문제로 2006년 3/4분기까지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는 189억 달러로, 연간 25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
- 對日 수출의 어려움: 한국의 對日 수출품의 경쟁국은 미국, 중국, 대만 등이며 한국의 對日 수출이 확대되는 품목은 LCD디바이스 등 소수이고 이들 경쟁국들에 의하여 한국의 수출이 잠식되고 있음
 - 對日 수출을 위한 적정 환율은 100엔당 850~950원대이며 700원대 후반에서는 적자수출 또는 수출 포기가 발생함
 - 對日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와 부품 수입은 2006년 5월~9월까지 평균 13.78%의 수입 증가를 보이는 등 對日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06년 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매분기 60억 달러이상 발생하여 이러한 추세로 증가하면 2006년 對日무역적자는 25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함

< 대일 수출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2003	2004	2005	2006 1/4	2006 2/4	2006 3/4
수출	17,276	21,701	24,027	6,346	6,607	6,698
수입	36,313	46,144	48,403	12,382	13,143	13,033
무역 적자	-19,037	-24,443	-24,376	-6,036	-6,536	-6,335

자료: 한국은행

2) 대응방안

(1) 외환정책

○ 환율 안정을 위한 미세 조정 정책(Smoothing Operation) 지속 추진

-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도 환안정기금 등을 조성하여 환율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도 환율 급등락을 막기 위해 구두개입과 재정을 통한 미세 조정 정책을 지속 추진

○ 금융정책과의 정책조합(Policy Mix) 필요

- 국내외 금리차는 원화 환율의 추가적인 절상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 금융정책 수립 시 환율요인도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
 - 추가적인 국내 금리인상은 일본이나 미국 금리와의 차이 등도 감안하여 추진

○ 외환 당국의 신뢰성 제고

-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함으로써 외환시장에서 정책당국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정부의 환율정책 효과를 극대화

○ 원/엔 시장 활성화

- 원/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자 제도 등을 도입
 - 원/엔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 제도는 원/엔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항기관(외국환은행)을 정하는 것을 의미⁶⁾

○ 해외투자 포트폴리오 개선

- 한국의 간접투자 포트폴리오를 개선
 - 외국인 증권투자는 주식에 집중되어있는데 비해, 한국의 해외간접투자는 채권에 집중되어있어 단기적인 외국인 투자변화에 의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띄고 있음

6) 표한형, “2007년 달러화 약세 기조 지속 전망”, 「한국경제주평, 06-36」, 현대경제연구원, 2006. 9. 18.

- 외국인인 국내 증권투자의 주식 비중은 98%이며 한국의 해외증권투자의 비중은 25.7%에 불과함
- 파생 상품 등 해외주식투자의 비중을 높여 자본수지 흑자 기조를 완화하는 한편 환율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개선이 필요함
- 국내 채권시장을 확대 발전시켜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 유도

○ 단기채무 안정비율 신축적 운용

- 금감원 등 금융 감독기관은 환율변동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채무 관리를 강화해야 함
 - 단기채무의 안정비율은 현재 60%이나 원화의 환율가치와 변동 위험성을 고려한 신축적 안정비율로 단기채무 관리의 강화가 필요함
 - 단기채무가 급등할 경우 안정비율을 50% 등으로 축소

○ 동북아 통화 협력 강화

-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약세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권 국가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함
 - ‘원·엔·위안’의 아시아 공동 통화를 도입하여 미국 달러화 중심의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여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

(2) 기업정책

○ R&D 투자 지원 확대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강화

-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R&D 투자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증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혜택 등 지원 강화

○ 외환위험관리 교육 강화

- 현재 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환변동보험 등 환율관련 지원시스템을 확대 발전시키고, 선물시장에 대한 교육 등을 확대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선물시장과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해야 함

이원형 연구위원 (3669-4031, lwh@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구매력 급감으로 소비 침체 본격화

○ 2006년 3/4분기 전국가구의 가구당 月평균 소득은 305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실질로는 1.1% 증가) 하였으며, 소비 지출은 0.7% 증가 (실질로는 1.8% 감소)하는데 그침

3/4분기 기준 전국 - 반면 조세 12.0% 증가, 공적연금 8.4%, 사회보험 9.4%,
 가구의 소득 5분위 기타비소비지출(지급이자, 부담금 등) 7.1% 등 비소비지
 배율, 2003년 이후 출은 11.9%나 증가함
 최악 - 한편 5분위(최고소득층) 소득을 1분위(최저소득층) 소득으
 로 나눈 배율은 7.79로 3/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져 소득 양극화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실질 소득 감소, 조세, 이자 지급 등이 급증하여 당분간 소비 부진 지속 예상 -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세 등 비소비 지출마저 증가하고 있어, 가처분 소득(소비 여력) 감소에 따르는 소비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3.2(1.4)	4.5(1.6)	5.3(1.6)	6.1(1.2)	5.3(0.8)	4.6(0.9)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3.4	4.4	6.8	5.0	5.5	-1.3	3.4	4.2
		설비투자추계	1.4	3.2	1.4	1.1	7.0	4.3	4.2	4.1	11.7	14.7
		건설수주	-3.9	9.5	38.5	15.8	-17.9	-9.7	-14.1	7.3	14.9	94.1
	공급	수출	31.0	12.0	9.0	15.4	11.4	10.6	16.9	11.4	17.6	22.1
		산업생산	10.2	6.3	3.5	7.1	10.3	12.0	10.9	4.3	10.6	16.3
		취업자수 (만명)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1	2,345	2,316	2,330
		실업률 (%)	3.7	3.7	3.7	3.6	3.5	3.9	3.4	3.4	3.4	3.2
		수입	25.5	16.4	15.2	21.1	14.6	19.2	19.9	18.4	23.0	22.8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282	166	26	27	54	-11	7	-4	-6	14	
	무역수지(억\$)	294	232	60	49	61	16	51	4	4	20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0	2.3	2.5	2.3	2.4	2.3	2.9	2.4	
	생활물가	4.9	4.1	4.5	3.4	3.4	3.2	3.0	2.9	3.8	3.2	
전국가구 실질 소득		6.0	4.1	4.4	2.1	4.1	4.2	4.8	3.7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금통위, 콜금리 4.5%에서 동결

○ (해외 금융 시장) 美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따라 금리 소폭 하락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외환보유액 다변화 발언으로 유로화 강세

- 금리: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따르는 국채발행 축소 가능성 등으로 소폭 하락 (국채 10년물 : 4.72 → 4.63%)
- 환율: 유로화는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외환보유액 다변화 발언 등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엔화는 강보합세 시현(\$/€ : 1.2718→1.2829, ¥/\$: 118.01→117.93)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및 금리의 변동성 확대

금통위의 콜금리 목표 동결 등으로 주가 대폭 상승

- 주가: 주초반 1,380에서 횡보세를 보이다, 주중반 금통위의 콜금리 목표(4.5%) 동결 영향으로 은행 및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폭 상승 (1,383.9→1,399.4)
- 금리: 주초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4.78%까지 상승하였으나, 콜금리 동결에 따라 하락세로 반전 (국고채 3년 수익률, 4.62→4.70%)
- 환율: 금통위의 콜금리 목표 동결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수출업체 달러화 환전 수요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937.3→936.6)

○ (전망) 금통위의 콜금리 목표 동결 등으로 금리는 4.7%에서 횡보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4	3/4	4/4	1/4	2/4	3/4	11.3.	11.9.
국내	거래소 주가	1,008.2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383.9	1,399.4
	국고채3년(%)	4.02	4.60	5.08	4.93	4.92	4.57	4.62	4.70
	원/달러	1,025.4	1,041.1	1,011.6	971.6	948.9	946.2	937.3	936.6
해외	DOW	10,275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1,986	12,103
	Nikkei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6,350	16,199
	미국채10년(%)	3.91	4.32	4.39	4.85	5.14	4.63	4.72	4.63
	일본채10년(%)	1.17	1.48	1.48	1.78	1.93	1.68	1.72	1.71
	달러/유로	1.2108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2718	1.2829
	엔/달러	110.92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8.01	117.93
	두바이(\$/배럴)	52.09	56.32	53.19	59.16	67.17	57.33	55.74	57.74

주 : 해외 지표는 전일 기준임